

# 경북·전북도, 지리적 위치 활용해 外人 관광객 유치 박차

경북도, 글로벌 관광도시 목표  
성주군서 가족친화형 콘텐츠 선배

전북도, 지역 간 관광연대 전략  
전주대사습놀이로 행사 꾸러

경북과 전북이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두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경북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K-컬처의 분류인 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등으로 유명하다. 반면, 전북은 여행사인 센터비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스마트 관광을 도입하는 등 관광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 ◆ 경북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경북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마케팅



성주군 야간관광 본격 가동.

팅 정책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주군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친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첫발을 내딛는다.

## ◆ 성주군 '키즈·가족 친화형' 야간 콘텐츠 선보여

성주군은 인구 300만 배후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키즈·가족 친화형' 야간 콘텐츠를 선보였고 그 결과, 연중 진행된 '2024 트윙클성

주'의 5개 야간콘텐츠 만족도 조사에서 3040 세대와 10세 이하 자녀 동반 가족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 특화 전략 마케팅의 성공이 입증됐다.

올해 첫 야간 콘텐츠인 '성박숲 나이트 캠프(캠핑+피크닉)'는 성박숲 일대가 캠프(캠핑+피크닉) 감성으로 변신해 성주군 시그니처 야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 ◆ 전북 진정한 한국문화 경험

전북은 지역 간 관광연대 강화, 관

광객 유입과 대도시권과의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북의 대표적 축제인 전주대사습 놀이는 전북의 관광객 유치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 음악과 무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 전주대사습놀이 대장정 돌입

올해 전주대사습놀이는 7일부터 30일까지 전주대사습청,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3회 학생전국대회'를 연다.

'지화자'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대사습놀이 경연대회와 전야제 축하공연, 기획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부 종합본선은 30일 진행된다.

전북은 지역 다양성을 강조하고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특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덕군

#### 산불피해에 각계각층 기부 행렬

영덕군이 대형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기부가 복구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성금은 물론 생필품과 구호물품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6월 4일 기준, 영덕군에 접수된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은 총 2783건, 누적 금액은 약 72억 8498만 원에 달한다. 성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들에게 마음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울진군

#### 5일간 '제14회 울진예술제' 열려

울진군은 '제14회 울진예술제'를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울진연호문화센터와 연호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전시 오픈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무대와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울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발표하는 동시에 군민이 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음악, 국악, 미술, 문학 등 장르를 넘나드는 종합예술 프로그램이 구성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 광주시

#### 175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광주 북구는 베트남과 태국에 파견한 '2025년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이 총 175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광융합무역촉진단은 북구와 지역 12개 기업 관계자 등 총 25명 규모로 구성,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무역촉진단은 현지에서 기관·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방문, 현지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680만 달러 규모 실계약 체결, 1070만 달러 상당 수출 약정 계약, 370만 달러 규모 기업 간 MOU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 /광주=양수영 기자

### 대구시

#### 소상공인 출산·양육 부담경감

대구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에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무주택·임차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에 자녀를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한 경우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완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 9년 연속 쾌거... 사업비 80억 확보 공동체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기대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9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해양수산부 '2026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사업 선정 결과 '어울림 보길동 권역(보길면 중리·여항리)'이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했다.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주민 소득과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현장 답사와 주민 수요를 거쳐 생활 기반 시설 확충·정비,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정주여건 및 경관 개선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등 공모 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부 사업으로는 권역 거점 공간 조성, 공동 시설 리모델링,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사업 대상지 보길면 여항리 전경 /완도군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구유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의 열정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박지원 국회의원의 해수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적극적인 건의 등 덕분이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활력 넘치는 보길동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부산시, 온오프라인 통합 소비촉진 행사

### '부산세일페스타' 전개

부산시는 6월 한 달간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아우르는 통합 소비 촉진 행사 '부산세일페스타'를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운영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골목상권·대학가 상권 소비 축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전통시장 판매촉진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는 온라인 유통채널 3곳(네이버·지마켓·11번가)과 동백물(동백전 지역상품몰)에 지역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부산 전용관'을 개설한다.

이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식품, 생활·주방용품, 패션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부산 소상공인이 입점한다. 특히 10~20% 할인 프로모션이 1~3차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청송군, '산남파크골프장' 정식 개장

### 총 2.1만㎡ 부지... 18홀 규모

청송군(군수 윤경희)의 산남파크골프장이 오픈했다.

9일 정식 개장이 이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숙원사업으로, 총 2만1484㎡의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됐다.

산남파크골프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윤경희 군수의 민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23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추진돼 결실을 맺게 됐다.

산남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 첫 공식 대회는 오는 6월 26일 자선 성격의 '협회장파크골프대회'로 예정되어 있으며, 수익금은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송군은 이 대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대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남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소통과 공동체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상주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속도

### 산불 등 재난 상황 체험 특화시설 588억 투입해 2027년 완공 목표

경북 상주시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속도를 낸다.

상주시는 경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 화달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는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일정, 주변 환경 및 진입로 문제 등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산불, 산사태, 침수, 태풍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는 특화시설이다.

총 6개 체험존, 19개 체험실, 31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비 238억원 등 58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7년 완공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



경북 국민안전체험관.

전체험교육센터와 올해 준공하는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과 함께 관광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는 체험관 건립을 통해 시민과 경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체험관을 찾는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주(경북)=김준현 기자 kih9@